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례 10:15 오전 9:16 행 1:8
2025년 주님의교회 표어



496
2025.2.9.

오늘의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_ 열왕기하 5:14

오늘의 주요 기사

- | | | | | | | | |
|-----|------------|-----|----------|----|---------------|----|---------|
| 2 | 하나님의 선교 특집 | 6-9 | 제직사역조직 | 12 | 성도의 글 | 14 | 상승교회 편지 |
| 3 | 제직수련회 특강 | 10 | 가정사역원 소개 | 13 | 종교개혁지 탐방 후기 | 15 | 십자말씀이 |
| 4-5 | 중등부 겨울캠프 | 11 | 파더와이즈 후기 | 14 | (사)섬김과나눔 사역보고 | 16 | 공동체 소식 |



사역의 자리, 나눔의 자리, 배움의 자리로

지난해 12월의 크나큰 혼란과 충격적인 사고의 여파로 인해 새해 첫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2월이 되었습니다. 1월 말 설 연휴까지 지나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새해가 시작된 듯한 느낌입니다.

2월 첫째 주에 있었던 제직수련회에서는 2025년 교회의 여러 사역부서를 맡아 섬길 제직들을 위한 특강과 부서장 소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등부 겨울캠프에 이어 청년부 겨울수련회와 유소년부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고 곧 가정사역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교와 그 실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실천을 위해 교회의 사역부서에서 섬기고, 겨자씨 나눔을 통해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몸을 움직여 땀을 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움츠러들기 쉬운 시기에 더욱 사역과 나눔, 배움의 자리를 찾는 것이 신앙의 겨울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번 함글함글 6면부터 9면까지는 주님의교회 사역부서를, 10면에는 올해 가정사역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역과 배움의 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늦밤을 바라보았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신앙이, 교회의 사역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 1면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글이든지 1면을 채울 글을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정성껏 1면을 채워드립니다.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2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창세기 1:28)

2025년 함줄함울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받은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가정의 의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8)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과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인류의 번성과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 그의 선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이후 땅에 내려 번제를 드린 이후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창세기 9장 1절, 7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단순한 사회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현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의 특징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반으로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번성과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뜻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세워질 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넘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때,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돌보고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라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며, 그 질서를 깨뜨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을 세우는 실천 방안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읽기, 찬양, 기도를 통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처럼, 가정 내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인내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서도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를 아끼며 보살펴줄 수 있습니다. 말로, 그리고 작은 손길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이 지역사회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해외 선교를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단체를 정해 정기 후원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기도는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질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함줄함울

제직수련회
특강요약

나의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

2025년 2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제직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장통합 헌법 제30장에 담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주 예수는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세속 행정기구와는 다른 교회의 제직의 손에 한 통제 기관을 정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직은 교회 안의 여러 직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제직수련회를 통해 맡겨진 교회의 일들에 충성할 수 있는 결단과 소망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직수련회 특강은 주안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주승중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12~14절 말씀으로 '나의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인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선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은 귀한 신앙고백입니다. 그는 삶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2년 동안 재판관을 받은 적이 있고 다시 로마의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있으니 4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에서 진보라는 말은 군대의 공병대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열린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죄인을 다룰 때는 4명의 군인이 죄인을 감시하는데 2명은 죄인과 함께 묶여 있고 2명은 감옥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교대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던 군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여있었기 때문에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있을 때도, 연금상태에 있을 때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결과 로마의 시위대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낱자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30~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빌립보서 4장 21~22절 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문안 인사 중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 즉 황제의 친인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교회 성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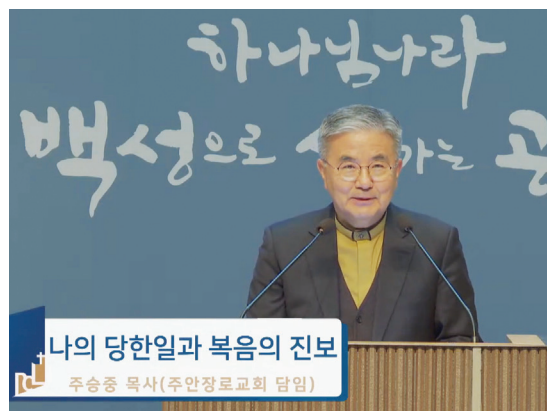
바울이 당한 일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의 쇠사슬 매임이 복음의 큰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섭리를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섭리를 알린 것입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넓게 많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이 진리에 비추어 우리 삶을 한번 조명해봅시다. 우리 삶에도 바울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속상하고 한숨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함글함글



중등부
겨울캠프

로로하자 1419, 팝콘이와 함께 하는 투위스트!

청소년부 중등부 겨울 캠프가 2025년 1월 24~26일(금~주일)까지 2박 3일간 “팝콘이와 투위스트”라는 주제로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주제인 “팝콘이와 투위스트”는 Together에 ‘투’와 위로의 앞 글자인 ‘위’ 그리고 초석을 뜻하는 Cornerstone의 ‘st’를 사용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초석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살자는 목적과 의미를 담았다. 특별히 소년 1,2부와 어린이 영예배부에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중등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여는 예배로 시작된 겨울 캠프에서 학생들은 어색함과 긴장 그리고 기대감을 표정에 담고 있었다. 여는 예배 후에는 조별 모임을 통해 조원 친구들을 해시태그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열린 마음으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던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조별 모임에 참여했다.



조별 모임 이후에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위로의 탑’ 프로그램을 통해 2025 청소년부 주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방탈출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학생들은 아주 즐겁게 참여했다. 이후 저녁 집회를 통해 교회인 우리가 함께 지어저감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프로그램과 집회로 허기진 배를 달래줄 ‘위로 분식’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 QT는 침묵과 함께 몸을 단련하며 학생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는 시간을 가졌다.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달리 더 달리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후 아침을 먹고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짧은 ‘스피드 퀴즈’와 ‘너와 나의 모습이’ 율동 그리고 ‘친구를 찾아라!’를 통해 서로를 알아갔으며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고 주위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위로 올림픽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고 협동심을 기르는 시간으로 함께 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과 그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알아가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도했다. 집회 시간에 진행된 셀러브레이션을 통해 찬양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은 목소리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후 간식을 먹고 ‘위로파티’가 진행되었다. 누워서 또는 편한 자세로 찬양과 위로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의 마지막 날이었던 셋째 날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 ‘억눌린 자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캠프를 마무리했다. 예배로 시작되어 예배로 마친 중등부 겨울캠프를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 시작된 2025 팝콘트리 중등부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찬양 전도사 / 중등부



중등부
겨울캠프

내가 받았던 은혜를 돌려주자

저는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진급함과 동시에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등부 시절,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청년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제 자신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컸기에 청년이 되자마자 자연스럽게 중등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번 겨울 캠프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 학창시절, 선생님들께 받았던 선한 영향력을 과연 내가 되돌려 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캠프를 시작하기 전 저의 기도 제목은 “내가 선생님들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도 그 은혜를 돌려주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캠프기간 동안 기도 제목을 붙들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학생으로만 참여했던 캠프를 교사로 준비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중등부에서의 사역이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에 배워야 할 점이 많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중등부 학생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청소년 시절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에게 자랑스러운 청년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전승미 교사 / 중등부

중등부
겨울캠프

함께 지어져 가네

코로나 이후에 첫 오프라인 캠프를 한지 엇그제 같은데 그새 오프라인 캠프도 여러 번 겪었네요.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초6 친구들이 중등부에 올라오면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왜 하나는 듯 중1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게 프로그램들을 참여해주어 고맙고 저에게는 그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매해 진행되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아직은 어리고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배우며 감동을 합니다. 그 포

인트는 집회 시간에 그렇게 장난기 많던 친구들이 어느새 진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감동 받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아직도 어수선했던 가운데 이번 캠프 주제 찬양인 “함께 지어져 가네”제목처럼 저희와 아이들이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현 교사 / 중등부 찬양팀

중등부
겨울캠프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

캠프에 가기 전에는 약간의 기대와 함께 걱정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주어진 활동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조끼리 둘러앉아 설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 캠프에서 도전정신을 배웠습니다. ‘위로의 탑’이라는 활동 중 미션을 통해 높이 올라가는 도전과제가 있었는데, 평소 체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팀

원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성취감과 용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는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뉘었던 대화와 웃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했던 매 순간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로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캠프를 통해 배운 것들을 앞으로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예지 학생 / 중등부 중3

중등부
겨울캠프

청소년숲에서의 첫 캠프

겨울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차를 타고 교회로 가면서 첫 청소년숲 수련회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었습니다. 로비에서 계단을 내려가 등록을 하고 중예배실에 들어가서 무거운 의자들을 뒤쪽으로 밀어두고 만드신 넓은 공간을 보았을 때부터 수련회에 대한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방탈출 느낌으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면서 조금씩 교회 5층까지 올라가는 ‘위로의 탑’과 4개의 종목(?)을 진행하며 점수를 쌓아가는 ‘위로 올림픽’을 해보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로의 탑’ 프로그램에서는 미션에 실패해도, 서로 격려하면 다시 시도해 볼 기회를 같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위로 올림픽’을 진행하기 전, 각 조가 가상의 국가를 정하고, 국기를 그려 발표할 때에는 원하던 대로 자신있고 확실하게 발표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수련회

에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1박 2일은 있어 봤어도 2박 3일을 교회에서 지내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깨끗한 침구류와 따뜻한 난방 덕분에 우리집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에는 운동장에서 아침 운동과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밤에 있었던 저녁 집회에서 다양한 찬양을 들어보고, 나와 교회 그리고 나라에 대해 깊게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피곤하였지만 보람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숲에 올라와 경험한 첫 겨울캠프는 많은 친구들과 형, 누나들을 만나고, 더욱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캠프를 준비해주신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승혁 학생 / 중등부 중1

2025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 서기 : 손영익 장로

서기 : 정유석 안수집사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손영익 장로

재정 : 김은성 장로

감사 : 유정식 장로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조병길 장로	예 배	신호철 장로	박민규 목사
		음 악	서정하 장로	조연상 목사
		소그룹	신형섭 장로	이대혁 목사
		젊은이	최영인 장로	이대혁 목사
		시니어	조병길 장로	채모세 목사
		양 육	김광일 장로	박준범 목사
		봉 사	정상기 장로	이태욱 목사

1) 예배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부	윤승진 / 이정우 안수집사	4	성찬부	박성갑 안수집사	7	중보기도부	임미희 권사
2	안내1부	김상진 안수집사	5	세례부	오광순 안수집사	8	할렐루야찬양대	신말희 권사
3	안내2부	손준웅 안수집사	6	새벽기도부	오세원 안수집사	9	영어예배부	박경준 안수집사

2) 음악 분과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오르간/피아노)	#	부	지휘자	부장(대장)	반주자(피아노)
1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이효두 안수집사	이혜정 / 조선희	4	임마누엘찬양대	이명국 안수집사	김성우 안수집사	조현기
2	시온찬양대	김현욱	임채홍 안수집사	황은지 / 김현정	5	찬양지원부		김정래 안수집사	
3	샬롬찬양대	김형수	이정혁 안수집사	김성희 / 정이와	6	주오오케스트라	악장:정유경 집사	임경의 집사	

3) 소그룹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소그룹지원부	배애리 권사	2	은사사역부	윤기선 권사

4) 젊은이(8교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1	젊은이사역부	임연옥 권사

5) 시니어(1교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1	시니어사역부	정원영 안수집사

6) 양육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김병연 안수집사	2	양육훈련부	이영수 권사

7) 봉사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봉사부	오세원 안수집사	3	도서서점부	박동진 안수집사
2	주차안내부	유신식 안수집사	4	결혼예식부	유윤실 권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낙균 장로	유아	최성이 장로	이윤경 목사
		유소년	박기운 장로	이상훈 목사
		청소년	이현식 장로	방윤주 목사
		청년	김낙균 장로	박성철 목사

1) 유아 분과위원회 (유아숲)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1	유아숲 교육지원부	이윤경 목사	이은우 권사	5	영아부(하늘씨앗)	이영선 목사	어진원 안수집사 / 조은영 권사
2	아기정원	이은솔 목사, 이수진 전도사	신미영 집사	6	유아부(썬트네)	이은솔 목사	강기선 권사 / 송성욱 안수집사
3	유아숲 1부	이영선 목사	지형민 안수집사 / 조은경 권사	7	유치부(담쟁이)	이수진 전도사	이숙희 권사 / 이왕희 권사
4	아기부(하임)	김오정 전도사	박수희 권사 / 이선옥 권사	8	어와나 커비스	김오정 전도사	차호 안수집사 / 이유미 집사

2) 유소년 분과위원회
(유소년숲)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1,2부)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1	유소년숲 교육지원부	이상훈 목사	윤상현 안수집사	5	어와나 스팍스	강요한 전도사	송성욱 안수집사 / 윤현숙 권사
2	유년부(포도나무)	강요한 전도사	송영민 안수집사 / 김선희 권사, 송태현 집사 / 이경아 권사	6	어와나 티앤티	신다윗 전도사	이정우 안수집사 / 엄미영 집사
3	초등부(햇살뜨락)	유익진 전도사, 이상훈 목사	이승훈 안수집사 / 임광희 권사, 조민호 안수집사 / 김경희 권사	7	어린이 EM	정지인 목사	김재울 안수집사
4	소년부(아름드리)	신다윗 전도사	김천식 안수집사 / 원은영 권사, 정유석 안수집사 / 이춘희 권사				

3) 청소년 분과위원회
(청소년숲)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1	청소년숲 교육지원부	방윤주 목사	신기숙 권사	4	어와나 트랙	백양선 전도사	임성훈 안수집사 / 손태향 권사
2	중등부(팝콘트리)	주찬양 전도사, 오성민 전도사	정재영 권사 / 이경희 권사	5	어와나 저니	백양선 전도사	임성훈 안수집사 / 손태향 권사
3	고등부(비전트리)	김계원 목사, 박유진 전도사	정회봉 안수집사 / 이미경 권사				

4) 청년 분과위원회
(청년부)

#	부	담당교역자	부장 / 부감
1	청년부	박성철 목사, 김세연 전도사, 조수휘 전도사, 정지명 전도사	정락영 안수집사 / 정선화 권사

3.선교구제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구제	황용환 장로	국내선교	정준호 장로	배윤환 목사
		통일선교	황용환 장로	차승천 목사
		해외선교	임익수 장로	이태욱 목사
		전문선교	홍완식 장로	조연상 목사
		구제복지	김용규 장로	배윤환 목사

1) 국내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권진영 권사	5	협력교회선교부	목기숙 권사
2	군경선교부	북향수 안수집사	6	다문화선교부	장동현 안수집사
3	농어촌선교부	천정희 권사	7	기관선교부	이신형 안수집사
4	도시교회선교부	박범석 안수집사			

2) 통일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 지도권사
1	통일선교지원부	홍정미 권사	3	너나들이부	강대수 안수집사
2	하나원부	박찬호 집사	4	대외협력부	이성호 안수집사

3) 해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박석진 안수집사	4	선교지역 1부	안정수 안수집사
2	선교기도교육부	정혜정 집사	5	선교지역 2부	신성철 안수집사
3	비전트립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	6	외국인유학생선교부	김영화 집사

4) 전문선교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박준명 안수집사	5	이미용부	최종경 집사
2	스포츠선교부	서철수 안수집사	6	법조선교부	배태민 안수집사
3	무용부	윤숙영 권사	7	의료선교부	이광우 안수집사
4	사진부	박진현 안수집사			

5) 구제복지 분과위원회

#	부	부장	#	부	교역자	부장
1	구제부	홍기호 안수집사	4	사랑나무부	문정수 전도사	엄인호 안수집사
2	호스피스부	이미경 권사	5	장애인사역부	김은선 목사	탁동원 안수집사
3	전화상담부	김숙연 권사				

4.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최성이 장로
담당 교역자 : 방윤주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사원지원부	박은경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학원선교부	고영선 권사	4	꿈나무부	전숙정 권사

2) (사)섬김과나눔
담당 장로 : 최재경 장로
담당 교역자 : 채모세 목사

#	부	부장	#	위탁기관	부장
1	사무국	이철용 안수집사	5	사무부	양혜림 집사
2	생활지원부	소봉순 권사	6	지원부 위원	강석구,최명철 안수집사
3	특별지원부	이정은 집사	7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4	공익사업부	최희은 집사	8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3) 가정사역원(B.P.C.)
담당 장로 : 박기운 장로
담당 교역자 : 박준범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가정사역부	정현식 안수집사	2	가정사역 훈련부	고경임 권사

5. 전문위원회

위원회 / 센터	위원장	위원		부장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손영익, 황용환,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최재경, 윤경수		
대외협력위원회	손영익	이현식, 최재경, 임익수, 홍완식, 방윤주		(사무국장)
인사위원회	김화수	손영익,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최재경, 임익수, 윤경수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손영익, 황용환,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미디어관리위원회	임익수	김낙균, 서정하, 신형섭, 신호철, 채모세		홍보출판부 : 어진원 안수집사 역사자료관리부 : 정원영 전문위원 디지털미디어부 : 장병남 안수집사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손영익, 조병길, 김광일, 김은성, 김낙균, 최재경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김낙균	이현식, 서정하, 정준호, 김용규, 정상기, 차승천		
치리위원회	김화수	손영익, 이현식, 김용규, 홍완식, 윤경수		
상례위원회	상반기 : 박기운 하반기 : 신호철	신형섭, 박기운, 신호철, 정상기, 최성이, 최영인, (사무국장)		상례부장 : 구태호 안수집사 하임찬양대장 : 박정은 권사 지휘 : 안명숙 집사 반주 : 김혜선, 유혜경 권사
주방운영위원회	상반기:(정) 서정하 하반기:(정) 임익수	(부) 임익수 (부) 서정하		주방부장 : 유정아 권사
하나님의선교위원회	김화수	손영익, 황용환, 조병길, 김은성, 김낙균, 최성이, 윤경수, 박민규, 차승천, 이태욱, 조연상		
재정위원회	김은성	계수1부 : 이광실 권사	계수2부 : 박태곤 안수집사	재정부장 : 최봉수 안수집사
감사위원회	유정식	윤성진 안수집사, 손태향 권사, 김성수 안수집사, 차정숙 권사		

6.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여전도회 연합회장	원인숙 권사	남선교회 연합회장	전선재 안수집사
1여전도회	성옥환 권사	1남선교회	임정식 안수집사
2여전도회	원인숙 권사	2남선교회	한재희 안수집사
3여전도회	임연옥 권사	3남선교회	이성균 안수집사
4여전도회	노수희 권사	4남선교회	
5여전도회	김주현 집사	5남선교회	양성호 집사
6여전도회	최윤정 집사	6남선교회	박재민 안수집사
권사회	김명숙 권사	안수집사회	박준명 안수집사
		장로회	조병길 장로

7.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주요 사역(위원회)	기타 사역 및 기관
윤경수 목사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사역총괄, 목회행정, 피택자교육, 자치회(장로회)
이대혁 목사	8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젊은이분과위원회	기획, 상례, 교적, 자치회(권사회)
이상훈 목사	유소년숲	유소년분과위원회	유소년숲 총괄, 초등부, 어린이제자훈련, 가정사역원(파더와이즈)
배윤환 목사	4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구제복지분과위원회	장애인사역부, 양육클래스, 가정사역원, 자치회(여전도회)
박민규 목사	3교구	예배분과위원회	중보기도부, 새벽기도부
이윤경 목사	유아숲	유아분과위원회	유아숲 총괄, 아기정원, 가정사역원(마더와이즈)
차승천 목사	6교구	통일선교분과위원회	너나들이, 세움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박준범 목사	5교구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부, 큐티사역, 가정사역원 총괄, 한절묵상, 자치회(안수집사회)
방윤주 목사	청소년숲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숲 총괄, 청소년사역원
박성철 목사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청년사역 총괄
채모세 목사	1교구	시니어분과위원회 미디어관리위원회	미디어행정(IT/방송/음향), 영상기획 및 관리, (사)섬김과나눔
이태욱 목사	7교구	봉사분과위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주방위원회, 함즐함울, 자치회(남선교회)
조연상 목사	2교구	음악분과위원회 전문선교분과위원회	찬양사역

전임 교역자

김은선 목사	장애인사역부(에바다, 싯딤나무), 가정사역원(해피맘스쿨, 꿈꾸는3막)	이왕헌 전도사	목양실, 새가족부, 하나님의선교위원회, 가정사역원(아름다운 부모학교)
이은솔 목사	유아부, 행정, 아기정원	강요한 전도사	유년1,2부, 어와나, 가정사역원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김계원 목사	고등부, 청소년사역원	주찬양 전도사	중등부, 청소년사역원
박정민 전도사	소그룹(행정), 피택자교육, 젊은이(8교구)	김세연 전도사	청년부(조이힐), 찬양팀, 방송팀, 워십팀, 연극팀
이영원 전도사	양육(큐티), 중보기도부, 가정사역원 (결혼예비학교)	김지민 목사 (준전임)	영어예배부

가정사역원

신앙의 주체인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원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원은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돕고 양육합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웁니다. 주님의교회 자녀세대에게 모든 부모세대가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가족이 신앙의 교사가 되도록 돕습니다. 가정을 신앙의 주체로 세우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가정예배학교와 파더와이즈는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박준범 목사 / 가정사역원 총괄

결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가정의 첫 출발을 준비합니다. 6월 8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매 주일 3시, 초등부실에서 열립니다. (회비 4만원)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 8일, 3월 15일, 5월 10일, 6월 14일 토요일 새벽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경적 여성성'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삶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4학기 4가지 주제(지혜, 회복, 자유, 동행)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지혜편을 실시하며, 주님의교회 여성 성도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9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초등부실에서 열립니다. (회비 5만원)



해피맘스쿨

해피맘스쿨은 생명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임산부)의 모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행복한 엄마', 다양한 태교 활동과 사랑의 교제로 '행복한 마음'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4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Zoom)으로 열립니다. (회비 없음)



아름다운 부모학교

아름다운 부모학교는 부모들이 기독교부모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며 그의 신앙과 성품, 학업과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회비 3만원)



꿈꾸는 3막

꿈꾸는3막은 65세 이상의 노년 세대를 위한 노년기 신앙 교육 프로그램으로 6가지 주제인 영성, 비전, 지성, 건강, 관계, 영향력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번 꿈꾸는3막 3기 상반기 과정은 '비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초등부실에서 열립니다. (회비 4만원)



자녀축복새벽기도회

자녀축복새벽기도회는 부모세대와 조부모세대가 함께 주님의교회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자녀들과 가정의 앞길을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남성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파더와이즈>

남성들 대부분은 시간과 바쁜 일정에 쫓겨 인생의 다른 우선순위들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들이 원래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파더와이즈>는 남성이 바른 인생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6기를 맞이한 파더와이즈는 2024년 11월 1일(금)부터 12월 13일

(금)까지 7주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성 성도분들이 내면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로부터 사랑 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파더와이즈>에 주님의교회 가정, 아버지, 남편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더와이즈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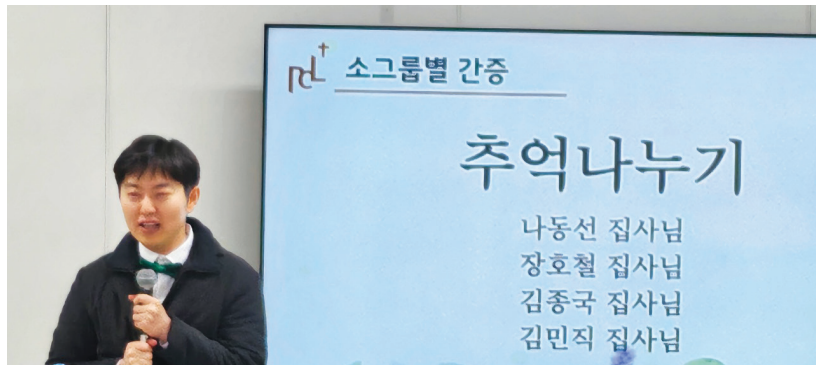
이상훈 목사 / 파더와이즈



가정사역원
파더와이즈

평안과 행복의 회복

저는 이번 파더와이즈가 작년 지혜편에 이어 두 번째 수료입니다. 작년 첫 번째 참여 이전을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불행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가정생활에도 큰 문제는 없었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항상 근심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고, 기쁨과 평안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었지만, 제 내면에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자씨 인도자님의 권유로 파더와이즈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파더와이즈에 참여하면서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부족함 없이 제공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으니,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모인 다른 가정들을 보며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가정의 문제를 훨씬 지혜롭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

었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파더와이즈에서 새롭게 알게 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나눔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며, 때로는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주제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혼란스러운 결론에 이르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파더와이즈에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해결책과 실행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주어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임을 배우며, 소유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니 기쁨이 샘솟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파더와이즈로 저를 인도하셔서 평안과 행복을 회복하게 해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의 삶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김민직 집사 / 파더와이즈 6기

성도의 글

이 시국에 교회를 생각한다

우리 애들은 요즘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 당분간이라 말하고 싶다.

엄마 말 잘 듣는 딸마저 갖은 핑계를 대며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믿음의 크기가 작을지언정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다. "너 이 험한 세상에 뭘 붙들고 살아갈래?" 자신 없이 겨우 내뱉은 기억이 난다.

딸에게서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니다.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내뱉는 딸에게, 이미 다니고 있는 엄마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가까스로 생각한 말이다. 십자가의 보혈과 같은 모태신앙인 나조차 잘 와 닿지 않는 개념으로 설득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나를 속속들이 아는 딸이 콧방귀조차 끼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다. 우리 애들이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앙이 없는 남편? 그것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은(아직) 없지만 생각이 온건하고 인격이 꽤 괜찮은 사람과 명예를 함께 메기로 한 선택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이들 눈에 별로 본이 될 게 없는 생활인으로서의 하찮은 내 모습? 그 이유도 있겠다.

결론이 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애들이 하는 말에 안테나를 세워 본다. 넷이 휴게소에서 라면 먹고 있을 때였나 보다.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내가 꺼냈던 것 같다. 남편이 대꾸한다, "그래, 다들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큰 애가 바로 가세한다. "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건 너무 진실성 없어"

중학생 둘째 아이는 나와 함께 해외의 한인 교회에서 일 년 남짓 어른 예배를 같이 참석했었다. 크지 않은 공동체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 데 모아 따로 교육부를 운영했지만 딸은 거기에 가는 걸 거부하고 대신 내 옆자리에 앉았다. 내 옆에서 책을 읽기도, 가끔 조는 엄마 대신 자기라도 콧코하게 설교도, 기도도 귀담아들었다고 한다.

여러모로 참 좋은 교회였다. 사모님과 사별하시고 한창 크는 아이들을 타국에서 혼자 수년간 키워 오신 목사님을 나는 깊이 존경했다. 하지만 딸은 잠깐씩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에서 귀가 솔깃해지며 말쑥이 이해되는 순간이 없었나 보다. 귀국한 이후부터 굳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시국이 참 불안하다. 너네 괜찮냐고 뜬금없이 물어오는 외국 친구들의 진심 어린 안부 인사에 무안해진다. 이번 여름에 서울에 놀러온다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굳이 물어보기 민망하다.

나의 정치적 성향은 콧 집어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면서부터 내가 지켜보는 정치인들은 내가 그와 일해도 무리가 없겠는지의 판단 기준으로 나눈다. 어느 쪽, 어느 색깔로 낙인찍히는 게 싫다. 나는 이걸 중도라 칭하지는 않는다.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기준이 있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지구촌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나보다 오래도록 생활할 내 아이들을 생각하면 절대 무관심할 수는 없다. 나는 양비론은 더욱 아니다.

권한대행마저 탄핵되고 무안공항에 참사가 발생한 후부터 며칠 밤잠을 설치자 나는 교회에서 실마리를 찾고 싶어졌다. 이런 상황에 교회에서 접하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심란할 때에 교회에서 위안과 확신을 얻고 싶어 기대하는 마음도 가졌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표현이 낯익다. 새롭지 않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데 우리가 하는 말은 새롭지 않다. 이 상황에서 내가 혼자 내린 결론이라면 그건 혼란 속에 거하며 피조물로서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석연치 않다. 기성세대의 관성으로 그저 교회에 참석하는 생활을 가늘고 길게 이어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죄스럽다.

기도란 무엇일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걸 내가 믿는다고 하는 대상께 아뢰고, 그분의 임재 속에 침묵하는 것도 기도의 한 모습이 아닐까? 나의 혼란, 두려움, 부끄러움, 소망, 새로운 것 없는 일상, 앞뒤 맞지 않는 생각... 이 모든 것을 때때로 나누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좋은 일이 있어 "할렐루야" 외칠 수 있을 때, 논리적으로 나의 원을 고할 수 있을 때, 혹은 내가 절박할 때에만 찾는 대상이 하나님일까?

교회에서 나누는 말들이 우리의 일상과 겹돌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광이란 무엇일까? 은혜란 무엇이며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오늘 내게 주는 의미를 각자 생각하며 세련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묘사해보면 좋겠다. 나의 정치 성향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바뀌어도 각자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믿음의 모습, 삶의 형태, 각자의 처한 상황이 달라도 다소 불편하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교회여야 우리 애들이 솔깃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모르는 것을 나도 모르겠으니 같이 찾아 나가보자고 하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일말의 호기심을 가질 것 같다. 같이 해볼 수 있는 일이 있기에. 인간이기에 경험하는 필연적인 혼란과 불편을 터놓고 솔직히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 나가는 우리 애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세원 집사 / 5교구



종교개혁지
탐방 후기

여행의 낙수(落穗)들

지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9박 10일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종교개혁지 탐방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종교개혁지 탐방입니다. 2025년 새 달력도 이때 다녀온 종교개혁지를 사진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작년에 다녀오신 분의 여행문을 지난 호에 이어 연재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시기를 바라며, 올해 가실 분들은 기대함으로 소망하고, 모든 성도들이 올해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지난호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파리에 입성했다. 개선문은 1806년 오스텔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의 명령으로 건축가 장 프랑수아 살그랑의 설계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812년 러시아 전쟁에서의 패배로 공사가 중단되고, 나폴레옹의 사후인 1836년에야 루이 필립에 의해 겨우 완성되었다.

나폴레옹 1세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이 개선문을 살아 있을 때는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후에 그의 유체가 개선문 아래를 지나 파리로 귀환해 군사박물관내 앵발리드 돔 아래에 매장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독일 점령에서 파리를 해방시킨 드골 장군이 이 문을 통해서 행진을 했다.

에펠탑은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189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축되었다. 이 탑은 프랑스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와 감독아래 지어졌는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철골구조물로 주목받았다. 에펠탑은 그 높이와 독창적인 디자인 때문에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철골 구조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후 전통을 넘어서 혁신적인 공학적 업적을 상징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프랑스의 기술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되었다. 또한 에펠탑은 혁신과 진보를 상징하며 철제 건축물로서 인류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었고, 에펠탑의 모형은 송전탑의 모습으로 축소, 변형되어 전 세계에 퍼졌다.

순례 여정의 마지막으로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물려드는 인파에 밀리듯이 안으로 들어갔다. 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을 위한 쇼핑센터, 기념품 및 선물센터, 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나폴레옹이 집권한 이후 수없이 많은 원정 전쟁을 통해 예술품을 매입, 선물, 약탈하면서 대규모 박물관으로 변모하였다. 현재 박물관의 225개 전시실에는 그리스, 이집트, 유럽의 유물, 왕실 보물, 조각, 회화 등 40만 점의 예술품이 있으며 그중 약 4만점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원래는 요새였으나 16세기 때 르네상스 양식의 궁전으로 새롭게 개조되었고, 이어 많은 왕족들이 4세기에 걸쳐 루브르 궁전을 확장하고 개조했다. 파리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루브르, 'ㄷ'자 형태의 근엄한 건축물은 투명한 유리 피라미드를 마치 보석인양 품고 있다. 걸작들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아 헤매는 그 길은 미로 찾기만큼 복잡하다. 특히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 앞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관람객들로 꽉 차 있어서 멀리서 밖에 볼 수 없다. 발뒤꿈치를 들고 팔을 공중으로 뻗어서 겨우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터넷에 나온 사진이 더 선명하고 구도도 좋아 보였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신·구교의 성직자들이 결혼에 대한 차이가 발

생하였다. 가톨릭 신부들은 독신의 전통을 따랐는데, 이는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셨으며, 사도 바울도 독신을 권장하고, 독신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길이라 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직자들이 결혼할 수 있었으나 점차 독신제가 이상적인 형태로 여겼으며,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오의 개혁을 통해 가톨릭에서 독신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성직자가 세속적 의무나 가정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정당화되었다.

개신교 목사들의 결혼 전통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확립되었다. 마루틴 루터는 독신제는 성경적 근거가 약하며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독신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신도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여 성직자의 결혼을 몸소 실천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따라 결혼이 신성하며, 모든 신자가 결혼하거나 독신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신교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신분적 구분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목사도 일반 신자와 같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직자의 가정 생활과 사역이 조화를 이루며, 가정이 목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결론적으로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헌신을 강조하며 독신을 성직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반면, 개신교는 성경에 따라 성직자의 결혼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선택으로 간주했다. 이는 종교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작가의 변

종교개혁지를 순례하고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그냥 혼자만 간직하거나 지나간 추억으로만 간직하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정리하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금년에도 같은 코스로 순례 여정이 있을 예정인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거나 자료를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순례일정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찍은 사진은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일반적인 사진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찌됐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작업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선재 안수집사



(사)섬김과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2024년 성탄절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결과

(사)섬김과나눔이 12월 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개최하여 주님의교회 성탄절 헌금과 캠페인 기간 동안 법인이 모금한 후원금으로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6회 후원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교회로부터 성탄절 헌금 8,000만원을 후원받고, 법인이 모금한 캠페인 후원금 전액 2,400여만원 등 총 1억 400여만원을 이웃돕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도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행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섬김과나눔의 이웃돕기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차상위계층 등 이웃돕기 지원

교구추천 19명, 장애인 사역부 37명, 사랑나무 5명, 청년부 7명, 너나들이(탈북청년) 16명, 특별지원부 2명, 국내선교(농어촌선교) 21개 등 116명에게 30~5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난방비 각 20만원 총 4,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희망상자 제작 지원(기아대책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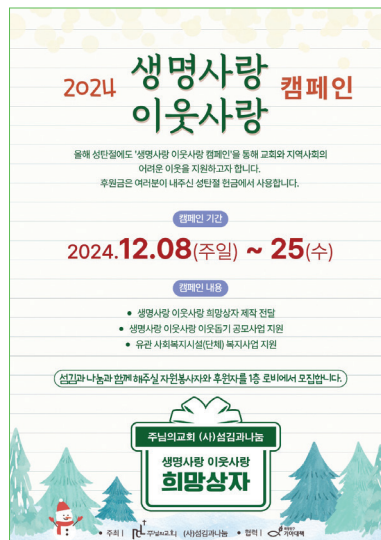
거여·마천 독거어르신 140개, 송파교육복지센터 50개, 특별지원대상자 35개, 교회 교구 및 장애인 사역부 57개, 너나들이 29개, 사랑나무 6개, 광야의교회 12, 우리들학교 30, 보훈회관 50, 교육지원 18개, 사회복지시설 15개, 한빛청소년재단 20개, 서광장로교회 20개, 길벗교회 25개, 섬김과나눔 2개 등 총 희망상자 500개(2,500만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웃돕기 공모사업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사)위례 송파주거안심중

합센터 주거상담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농아인협회 송파지회, 송파노인복지센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11개 사회복지기관에 생활지원금, 주거환경개선비, 긴급의료비, 특별지원교육비 등 총 4,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철용 사무국장 / (사)섬김과나눔



후원금(기부금)접수 안내

(사)섬김과나눔 사업에 후원을 원하는 분은 후원금 납부 전용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 필히 후원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원금 납부 전용 계좌

SC은행 204-20-518774 (예금주 :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군경선교부
상승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5사단 신병교육대대 상승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이후 사역에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한 훈련병들과 기간병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많은 훈련병들(2,600여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들려오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소리, 그리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여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다. 이러한 모든 열매는 여러분의 귀한 동역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물질적 후원은 예배 공간의 개선과 신병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훈련병이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나눔 덕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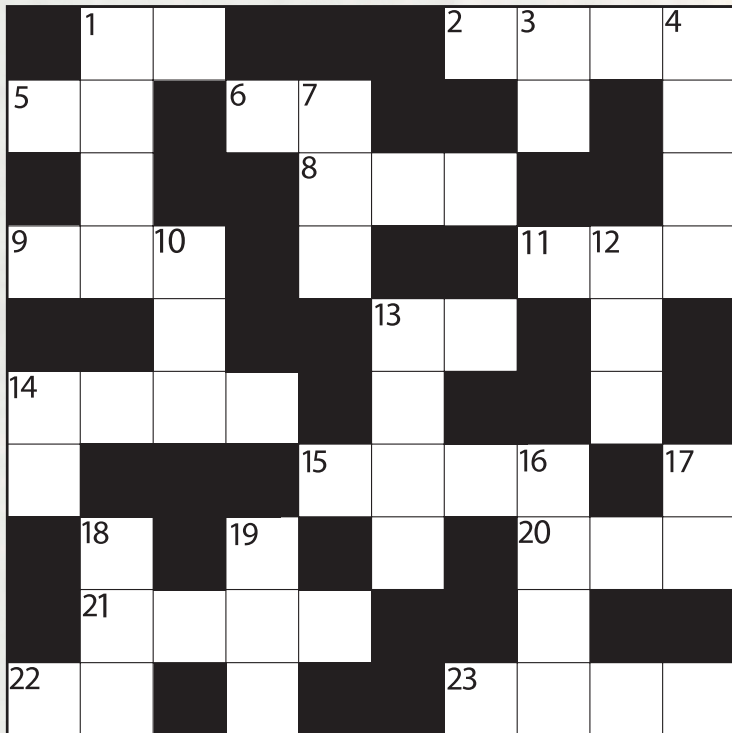
2025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군 선교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승교회의 사역을 위해 변함없는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감사드립니다. 샬롬 ~

문영은 목사 /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상승교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스가랴 편

지난 호 <스가랴> 편의 힌트 번호에 오류가 있어서 이번 호에 다시 게재합니다.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꼼꼼히 읽으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가로 힌트

1.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던 해안 도시. 국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다. (속 9:2)
2. 대제사장.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대제사장이었다. (속 3:1)
5. 여러 가지, 여러 곳을 골고루. "우리가 땅에 ○○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속 1:11)
6. 높낮이가 없이 편평한 지역. 산으로 이루어진 산지의 반대말로도 쓰인다. (속 4:7)
8. 바벨론 포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 중 하나. 뒤에 여호와의 전에 기념되었다. (속 6:10)
9. 바사와 바벨론의 왕. 이 왕의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속 1:1)
11.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이의 국경 지대에 있었다. (속 9:5)
13. 집 없이 떠돌아다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주로 창문에 쓰이며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광물의 이름과 같다. (속 10:2)
14.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하나. 이들의 지파가 거하던 지역은 후에 '사마리아' 라고 불리게 되었다. (속 9:10)
15. 주로 금속 가공하는 일을 하는 기술자.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여 칼과 낫 같은 기물을 만들었다. (속 1:20)
20. 바벨론 유배 이후 유다 종교력에서 11번째 달의 이름. 현대 달력으로는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이다. (속 1:7)
21.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허락한 동편 경계선이다. (속 9:10)
22. 어느 곳이나 때에 닿을.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지라" (속 14:5)
23.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지역 사람. 원래 '루스라는 지명이었으나 야곱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여로보암 이후 이곳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았다. (속 7:2)

세로 힌트

1. 길게 이어진 종이나 천을 둥글게 말아 놓은 것. 고대 성서는 주로 양피지 등으로 만든 이것에 기록되었다. (속 5:1)
3.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키는 일. 옛날에는 주로 군인이 맡았으며, 현대에도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다. (속 9:15)
4. 고대 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의 주요 도시. 사사시대에 유다 지파가 이곳을 차지했다. (속 9:5)
7. 여러 사람을 이끄는 지위에 있는 사람. 훌륭한 지도자는 방향을 제대로 인도하고, 각자 제몫을 다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도록 한다. (속 12:6)
10. 어떤 상황에 대하여 놀라움이나 깨달음, 공감을 드러내는 감탄사. 옛날 '오호통재라'로 쓰였던 감탄사를 줄여서 이렇게 썼다고 전한다. (속 2:6)
12. 불길에 걸만 약간 탄. 속까지 타 타지는 않고 거뭇하게 표면만 변한 상태를 말한다. (속 3:2)
13. 유다 민족의 전통적인 장막. 전통적인 주거 형태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성막을 의미하기도 한다. (속 12:7)
14. 구약 시대의 도량형 중 하나. 대개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이것을 담아서 측정하는 용기를 의미하기도 했다. (속 5:6)
16. 야곱이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 얻은 다른 이름. 이후 야곱의 후예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 (속 1:19)
17. 사월과 유월 사이에 있는 달. 현대 한국에서는 이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속 7:3)
18. 지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속 2:12)
19. 고대 유다 지역에 성행했던 우상.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거나 점치는 일에 사용되었다. (속 10:2)

광고

2025 유소년숄 겨울성경학교

2월 15일(토)~16일(주일)

주제 FRIEND MESSENGER (롬 10:15)
대상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및 새친구
장소 주님의교회 각 예배실

2025 상반기 교육일정

가정사역원

꿈꾸는 3막 3.6-4.24(목) 오전 10:00 초등부실 매주 목, 8주 4만원 박준범, 김은선 목사	마더와이즈 3.4-4.29(일) 오전 10:00 초등부실 매주 화, 9주 5만원 이윤경 목사	해피맘스쿨 4.4-5.23(금) 오후 1:00 홈(zoom) 매주 금, 8주 회비없음 김은선 목사
결혼예비학교 6.8-6.22(주말) 오후 3:00 초등부실 매주 주일, 3주 4만원 이영환 전도사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2/8, 3/15, 5/10, 6/14(토) 오전 5:20 대예배실 강요환 전도사	아름다운 부모학교 4.5-5.24(토) 오전 9:30 4층 대회의실 매주 토, 8주 3만원 배윤환 목사, 이영환 전도사

* 가정예배학교, 마더와이즈 : 하반기 실시

제5회 신춘문예

당선작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회 신춘문예에 간증 4편, 수필 5편, 시 17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중 지난 신춘문예에 제출했던 작품, 최소 응모 편수 미달 작품, 작품 분량 기준(200자 원고지 20장 내외로 3,600~4,400자) 미충족 작품 등을 제외하고 간증 2편, 시 12편으로 예심을 진행하여 간증 1편, 시 3편을 본심에 올렸습니다. 이후 교회 내외부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본심에서는 “1.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묵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창조적 상상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4. 응모한 부문의 장르적 특성에 응모작이 합당해야 한다. 5. 시적 허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어법이 지켜지고 있어야 한다.”는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작품이 없어 이번 신춘문예에는 ‘당선작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분의 작품은 함글함글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함글함글

주님과함께
읽기

옴의 고백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물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_ 욥기 42장 4~5절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옴의 고백, 이원진>

함글함글

495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진주현 집사(8교구), 정현정 집사(5교구), 김희정 집사(8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일정

2/9 (주일) 정기당회
 3/2 (주일) 성찬주일

알립니다

- 1. 유소년숄 겨울성경학교**
 기간 : 2/15(토)~16(주일)
 장소 : 주님의교회 유소년숄 각 예배실
 주제 : FRIEND MESSENGER(롬10:15)
 신청 : 각 부서 온라인 신청서
- 2 마더와이즈 9기(지혜편) 모집**
 대상 : 주님의교회 여성 성도(선착순 30명)
 신청 : 2/16(주일)까지
 방법 : 포스터 QR코드, 홈페이지 게시판 링크
 문의 : 이윤경 목사(010.9267.3582)

- 3 꿈꾸는3막 3기 모집**
 대상 : 65세 이상
 기간 : 3/6~4/24(매주 목, 8주)
 시간 : 오전 10:00~12:00
 장소 : 초등부실
 문의 및 신청 : 김은선 목사(010.4773.8186)

- 4. 에바다 수어교실 모집**
 기간 : 2/16~4/9(매주일)
 시간 : 오후 1:00~2:00
 내용 : 기초 한국 수어, 기독교 수어
 신청 : 김은선 목사(010.4773.8186)

모집합니다

-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 주일 12시~2시
 문의 : 신형섭 장로(010.5628.7957)
- 2. 호산나 찬양대**
 시간 : 1부 예배
 문의 : 김성배 안수집사(010.3656.7559)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